

복지농촌신행에 한발 다가서는 해가 되기를...



田 玩 植  
<'84 일반계 1모작 증산왕>

전북 김제군 성덕면 묘라리

지난 한해는 흉과 더  
불어 농부의 아들로 태  
어난 보람을 한껏 만끽  
한 한해였다.

과학영농으로 농가소  
득을 올리는 것이 나의  
꿈이라는 목적을 실현했  
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  
면서 깨달은 진리는 “흉  
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  
과 노력한 만큼의 댓가  
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영농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희망의  
새해에도 농토배양, 시  
한영농, 병해충 사전방  
제, 알맞는 시비, 철저  
한 물관리등 중요과제를  
소홀함이 없이 계속 실  
천할 계획이다.

새해의 영농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나의 꿈은 흙이 있는한 영원히 존  
재해야 된다는 각오아래 과학영농의  
실천기수로 앞장설것을 다짐하며 몇  
가지 새해 영농계획을 더듬어 본다.

첫째,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겠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일반벼  
수량의 한계점을 고려할때 1,000kg  
이상의 수량을 돌파할수 있는 다수  
계 신품종으로 바꿀 계획이다.

둘째, 농토배양을 계속 실시하여  
매년 반당 부식함량 75kg의 소모량  
을 보충하여 유지시키는 등 논토양  
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알맞는 시비법을 실천하겠  
다.

사람도 건강한 체격에서 영양섭취  
량이 많고 연약한 체력을 가진 사람  
에게는 과식이 좋지 않은것과 마찬  
가지로 논의 성질, 품종의 특성, 기  
상여건을 감안하여 벼 생육상태를

보아 가면서 시비조절을 할 계획이다.

일부농가에서 아직도 무분별한 비료 과용습성은 버려야 되겠다.

올해 시비기준은 농토의 유기물증시에 따라 증시하되 기비는 17-21-17부비로 종전보다 10% 더 증시하여 초기생육을 촉진 조절하겠으며 초기저온에 대비 분얼촉진을 위하여 재경시 용성인비 100kg을 시용할 계획이다.

넷째, 철저한 물관리로 건강한 벼를 만들겠다.

물싸움으로 농사짓는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됐다. 평야부로 보수일수가 5일정도 되는 식양토에서 물관리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양후 식상방지를 위한 담수침수는 좋으나 이양 30일경 유효경 확보가 끝나는 즉시 과감한 중간낙수로 벼뿌리 세근의 활력을 도모하고 유탐가스제거와 3-4절간 고온시 신장을 억제하는 뜻에서 10일정도 중간

낙수후 간단관수를 황숙기까지 실시하여 벼뿌리 노쇠를 방지하겠다.

다섯째 벼와 가까운 친구가 되어 병해충 조기에찰로 사전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벼농사는 병해충을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 그해 풍흉이 좌우되기 마련이다.

올해도 지난해 문고병(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된 포장을 써래질 할때 반드시 새물로 담수했다가 걸러대어 땅속에서 월동하는 균핵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사전방제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사용했던 농약은 새로운 농약으로 대체 사용할 계획이다.

새해에도 우리 농민 모두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복지농어촌 실현에 한발 다가서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㉞

